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闢에 관한 研究

楊茂木*

目次

I. 서론	III. 대순사상의 지상천국
II. 종교의 구원관	IV. 세계개벽의 실현
1. 기독교	V. 결론
2. 불교	

I. 서론

본 논문은 대순사상의 구원관이라 할 수 있는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地上天國建設 - 世界開闢)을 연구한 것이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순진리회에서도 인간의 구원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은 무자기-정신개벽(無自欺-精神開闢), 지상신선 실현-인간개조(地上神仙實現-人間改造), 그리고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지상천국 건설-세계개벽(地上天國建設-世界開闢)이다.

대순진리회는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으로서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천지공사를 행한 증산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포덕천하, 구제창생, 보국안민 등은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방법이고,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지상천국은 대순진리회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이며, 이를 실현하고자 수도를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수도라 하는데, 수도를 하

* 대진대학교 교수, 통일대학원 원장, 정치학 박사

는 목적은 인격을 도야하고 진정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데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地上天國建設-世界開闢은 수도를 하는 최고의 목적이며,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세계이다. 지상천국이란 자의(字意)와 같이 현실 세계를 완전한 이상세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여러 면에서 다른 종교가 추구하는 인간의 구원과 이상세계가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양의 대표적 종교인 기독교의 구원관과 동양 종교인 불교의 구원관, 그리고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이 갖는 종교적 의미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와의 비교 연구가 적절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세계개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宗教의 救援觀¹⁾

1. 기독교

사막에서 출발한 기독교는 인간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原罪)를 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죽음 등은 원죄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모습과 인격을 본 따 만든 것이어서 괴로움이 없었는데, 그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이 잉태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당으로 가려면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 섭리에 따라야 한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원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아야 하고 고통을 겪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독교에서는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등의 용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영생을 희구하고

1) 종교의 구원에 관해서 필자는 道라는 관점에서 유교, 도교, 불교와 기독교 등에 관해 이미 연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宗教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참조.

있는데, 성서에서 말하는 영생은 인간의 전인적(全人的) 부활을 뜻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4절에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몸과 영혼의 전인적(全人的)인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영생을 뜻한다. 영생은 유한한 인간의 몸과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영생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생을 천국의 생명이라 한다. 모든 인간은 생명을 선물로 받았지만 죽음을 피할 없는 존재이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몸과 영혼을 구원받아 영생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인간이 사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악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처럼,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말을 경청하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 충실한 신도가 되었다. 기독교에서는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굳게 믿고 생활에 실천하는 충실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성서적 계시에서 역사의 단서를 찾고 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태복음 24: 14) 라 하여 하느님의 목적은 천국의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느님은 역사를 주재할 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오직 하느님은 인간에게 역사의 사명을 맡겼으므로,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 역사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갈구하는 천국은 언제 올 것인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재림으로 이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인 천국이 올 것으로 기대하였다. 천국은 새로이 '오는 시대'의 시작이며 역사의 완성을 뜻한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시대가 언제 종말을 고할까?”, “주님은 언제 다시 오며 천국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예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마태복음 24: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태복음 24: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마태복음 24: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마태복음 24: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태복음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태복음 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태복음 24: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마태복음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오기 전에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전쟁이 계속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온갖 재앙이 나타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다. 성서에서 말하는 각종 재앙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으며, 예수가 살던 시절에 로마에는 온갖 전쟁과 환난의 참상이 나타났었다. 기독교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악이 횡행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지만,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악의 지배하에 있지만,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하느님은 인간사에 참여하지 않지만, 구원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느님이 종말이 올 때까지 같이 하면서 구원을 해 줄 것이라 한다. 하느님이 제자를 삼는데, 하느님이 분부한 것을 실행하는 것을 통찰하겠다고 한다. 이 말은 하느님의 계시와 계율의 실행정도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영생을 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절대자로 믿고, 가르침을 행하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 불교

불교는 모든 사람에게는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것이 불교의 수행과정이고, 모두가 해탈을 하고 열반을 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러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다. 석가가 설파한 갖가지 진리를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것이 불교의 수행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는데 이는 곧 사성제(四聖諦)이며 고통(苦諦), 집(集諦), 멸(滅諦), 도(道諦)라고 말해진다.²⁾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 고통의 근원,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 한다. 불교의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실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인 욕망에 의해 수많은 유혹을 받는다.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윤회를 하는데,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떨쳐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초연히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나아가서 진정한 부처가 되는 열반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성제의 시작은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苦)이라고 한다. 석가가 제일 먼저 설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에서도 첫째가 괴로움의 진리(苦聖諦)이다. 석가가 출가한 동기도 생로병사(生老病死)하는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보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여러 가지의 번뇌라고 한다.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번뇌는 독과 같다고 하는데, 세 가지 독이라 하여 삼독(三毒), 혹은 삼독심(三毒心)이라 한다. 삼독심(三毒心)이란 탐(貪), 진(瞋), 치(癡)를 말한다. 탐(貪)이란 탐내는 마음인데, 탐내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고통(苦)을 낳는다고 한다. 인간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것을 갖고자 욕심을 내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貪心)이다. 탐심은 색욕(性欲), 식욕(食欲),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등이다. 진(瞋)이란 성을 내는

2) 李載昌·역정·윌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pp. 29~31.

것으로 증오하는 성질을 말하는데, 성내지 않는 마음을 방해하고, 불안과 악행에 의해 업을 이룬다고 한다. 진심(瞋心)이란 곧 노여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다. 치(癡)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며 모든 이치와 일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어리석게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하여 잘못 행동하는 것이 치인데 인간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모두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일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데 이치에 밝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을 치심(癡心)이라 한다. 탐, 진, 치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부리는 마음 때문에 의도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노여워하게 된다고 한다. 치심(癡心)을 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구나 삼독심을 갖고 있는데, 삼독심을 버려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러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을 끊는 방법은 집착을 하지 않고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가 도성제(道聖諦)이다. 석가는 사람들이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나라(신의 세계)가 과연 영원한가를 살피고는, 하늘나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 하였다. 하늘나라에서 복이 다하면, 다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쾌락도 참다운 행복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輪回)이다. 과거의 나를 보려면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세의 나를 보려면 현재의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일종의 인과설(因果說)로 현재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과거와 미래의 나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불교의 구원은 고통의 극복이다. 무지가 극복되고 지혜와 깨달음을 이루면 고통이 소멸된다고 본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불교는 자연법을 추구한다. 다만 중생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극복하고자 하지만, 지혜가 없어 윤회 속에 고통을 반복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소멸하고 해탈·열반을 하면 네 가지의 공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것은 항상하고, 즐겁고, 참 나이며, 깨끗해진다고 한다. 이를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한다. 중생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괴롭

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이처럼 무상한 인생을 벗어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인 것이다. 고통 극복의 사성제는 인간을 괴롭히는 많은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

인간의 고통은 죄(罪)로도 표현하고 있다. 고통과 같이 죄도 극복대상인데, 고통이 일반적이라면 죄는 윤리적 표현일 뿐이다. 중생의 현실을 뜻하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淨)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성제는 둘째의 고가 주제가 되었으나 중생은 네 가지 속성 모두를 말하는데, 죄도 포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석가가 45년간 설한 모든 가르침은 팔정도로 집약될 수 있다. 팔정도(八正道)는 사성제를 세분한 것이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正見), 올바른 생각(正思惟), 올바른 말(正語), 올바른 행위(正業), 올바른 삶(正命),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기억(正念), 올바른 집중(正定)³⁾ 등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성제만으로 충분하다며, “나의 깨달음은 무량하나 내가 너희에게 사성제만을 가르치는 뜻은 바로 사성제 외에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⁴⁾ 라고 했다. 석가는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과 수행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팔정도를 가르쳤다. 불경에 있는 수천이 넘는 법문의 핵심은 팔정도로 귀결된다. 팔정도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것을 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팔정도의 8가지 범주는 위에서 열거한 순서대로 하나를 수행하고 나서, 다음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동시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여덟 가지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각기 다른 것의 행을 돕는다.⁵⁾

Ⅲ. 대순사상의 지상천국

대순진리회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최고의 이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상천국(地上天國)이다. 지상천국은 인간이 생활하는 현 세계를 인간이 생

3) 앞의 책, pp. 57~58.

4) 『阿舍經』 참조.

5)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外, 앞의 책, p. 58.

존하는데 최고의 이상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지상은 현실을 뜻하고, 천국은 하늘의 나라라는 뜻이다. 천국은 다른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유교에서도 하늘(天)은 인간과 자연을 주재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보고 있다. 천국은 인간이 생존한 상태에서는 상상만 할 수 있는 이상세계이다. 이상세계는 인류가 출현한 이래 추구해 온 최고의 상태이지만, 유사이래 실현된 적이 없다. 그런데 대순진리회에서는 인간이 생존하는 현실세계를 이상세계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현실세계를 진멸(盡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대순진리회를 창시한 증산은 31세 되던 1901년에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들어가 수도를 하였는데, 7월 5일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달아 성도(成道)하게 되었다. 성도한 증산은 천제(天帝)의 권한으로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계를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으며, 기행이적(奇行異蹟), 치병(治病) 등 신비스러운 활동을 하였다. 증산이 39세에 화천(化天)할 때 하늘에서는 갑자기 뭉게구름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 통하였다고 하며, 그 후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포덕활동을 하여 오늘의 대순진리회로 이어졌다. 대순진리회는 강증산 구천상제(九天上帝)로부터 천부의 계시를 받은 조정산 도주(趙鼎山 道主)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를 유명(遺命)으로 종통(宗統)을 받은 박한경 도전(朴漢慶 都典)에게로 이어지는 연원(淵源)을 가지고 있다.⁶⁾

지상천국은 대순진리회의 이상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로 도주(道主·趙鼎山)⁷⁾가 발표한 종지(宗旨)⁸⁾이다.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통진경은 지상천국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상천국은 도통진경과 동의(同義)로 같은 상태를 말한다. 도를 바로 깨닫고 이를

6)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p. 1.

7) 趙鼎山은 을미년인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탄강. 성은 조(趙), 존휘 철제(哲濟), 자함은 정보(定普), 존호는 정산(鼎山)으로 후에 도주가 됨.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1.”,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p. 190.

8) 道主가 을축년에 무극도(無極道)를 창도·증산을 九天 應元 雷聲 普化 天尊 上帝로 봉안·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함. 같은 책, “교운: 2-32.”, p. 201.

실천하는 과정이 '도통(道通)'의 경지이며, 그 결과로 우리들이 만나고 이르게 되는 곳이 '진경(眞境)'이다. 도통은 인간과 사물은 각기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치가 다 있는데, 이를 도(道)라 하고, 이 도를 환히 꿰뚫어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천지우주의 모든 이치를 환히 알기 때문에 밝고 바르며 투명한 세상이 되어 어떤 부정과 불의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진경이란 일시적이고 가식적인 현상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되며 진정으로 바른 것을 말한다. 경이란 하나의 세계이며, 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도통을 이룩한 뒤에 맞이하는 참되고 밝은 것이다.⁹⁾

지상천국과 같은 의미인 도통진경은 종지의 구현을 통해 가능하다. 도통진경은 음양합덕으로 무한히 풍요로운 세계에서 신인조화로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이 신명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투명하고 밝아서 어떠한 부정과 불의도 없는 윤리도덕적 질서가 확고한 세계가 되며, 인간사회와 신명계에 쌓인 모든 원한이 풀어지고 남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해원상생이 실현되는 세계이다. 대순진리회에서 말하는 도가 인간과 신명계, 그리고 우주 전체를 관통하여 완전히 통해지는 것이 도통이며, 진실한 이상세계가 된 것이 도통진경이고 지상천국이다. 이러한 지상천국에 대해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사망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¹⁰⁾

지상천국은 후천세계에서 가능한 세계이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인류 역사를 선천세계와 후천세계로 구분하는데, 지상천국은 후천세계를 뜻한다. 선천

9) 鄭大珍, “대순종지의 이해”,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pp. 16~19.

1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예시: 81.”,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336.

세계는 선천개벽이 된 이래 현재의 세계를 말하고, 후천세계는 후천개벽이 이루어져서 도래할 미래의 세계이다. 후천세계는 지상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도 지상천국과 같은 말이다. 지상선경은 신선이 살고 있는 세상으로 인간의 장수와 영생을 하는 이상세계로서 지상천국과 같은 세계를 말한다.

후천세계인 지상천국은 천하가 한 집안이 되는 세계이다. 선천세계에서는 여러 나라가 이념과 사상 등에 의해 분리되어 국가간에 경쟁과 전쟁을 한다. 그러나 후천세계가 되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 나라가 되어 완전한 평화와 조화가 실현된다고 한다. 그리고 어떠한 위협이나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참된 법리에 의해 나라를 통치하여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선천세계에서는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이 원한을 갖게 되었는데, 후천세계에서는 이러한 억울한 일도 없어진다고 한다.

후천세계에서는 백성들은 탐욕과 과욕으로 생기는 모든 번뇌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그리고 선천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였던 질병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신선과 같이 불로 불사하게 된다고 한다. 지상천국이 실현되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모든 질병이 없어지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선천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빈부 격차가 해소되어 모두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지혜도 밝아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사방세계에 통달하게 될 것이라 한다. 이른바 도통이 되어 인간과 우주의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고, 모든 일을 알게 된다고 한다.

후천세계에서는 선천세계에 만연되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였던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인간이 생존하는데 최상의 조건이 될 것이라 한다. 즉 인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삼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최적의 자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지상천국은 인간의 유한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연·환경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천하의 모든 나라가 한 집안이 되는 세계이다. 지상천국은 인간의 생존 환경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선과 같이 불로불사하며 영생하는 최고의 이상세계임을 알 수 있다. 즉 후천세계에 살게 될 인간은 모두가 도통을 이루게 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이다.

IV. 세계개벽의 실현

지상천국은 세계개벽에 의해 이루어진다. 세계개벽(世界開闢)은 대순진리회를 창시한 증산의 절대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증산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이다.¹¹⁾ 증산은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천도와 인도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진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¹²⁾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을 구원하고 지상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성육신(成育身)한 구천상제이다.

증산이 행하는 세계개벽은 선천세계의 온갖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후천세계를 여는 대작업이다. 선천세계는 선천개벽(先天開闢)에 의해 이루어졌다. 선천개벽으로 나타난 선천세계는 무(無)에서 유를 창조하여 이를 성장시켜 가는 생장(生長)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세계 각지에 팽배한 말세적 현상, 핵무기의 공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천세계는 음양의 분화(分化)와 다양한 존재의 갈등, 투쟁 대립하는 음양 배덕(背德) 음양 분덕(分德)의 세계로서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증산은 지상천국건설을 위한 세계개벽은 삼계 개벽이라고도 한다. 삼계(三界)는 천·지·인을 뜻하는데, 삼계는 직접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천·지·인 삼계 중 한 부분만 변화되어서는 세계개벽이 될 수 없다. 세계개벽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정신개벽과 천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천지개벽으로 나눌 수 있다. 정신개벽과 천지개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세계개벽이 실현되어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 선천세계를 후천세계로 변화시키는 세계개벽은 삼계대권을 가진 증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것이 천지공

11) 같은 책, “권지: 1-21.”, p. 271.

12) 같은 책, “교운: 1-9.”, pp. 155~156.

사이다.

세계개혁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의해 가능한데, 천지공사는 천지도수를 조정하는 데 역사이다. 증산은 우주는 자연법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우주가 어떤 질서있는 법칙에 따라 성(成)하고 쇠(衰)하는가를 밝히는 자명설(自明說)을 밝히고 있다.¹³⁾ 증산의 우주관은 우주 만물이 무이위화(無而爲化)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성쇠(成衰)하고 소장(消長)하는 것으로 본다. 우주의 법칙을 천지도수라 하는데, 천지도수는 우주의 질서와 운동의 법칙을 말한다. 천지 도수는 인간 세계와 우주 만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천지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선천세계가 진멸의 상태에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상극이 지배하여 쌓인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을 통한 상생(相生)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천지 도수를 바로 세워서 상극세계가 아닌 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선천세계는 천지 도수가 어긋나서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시대에는 천지 도수가 파괴되어 혼란 상태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극이 지배하여 인간과 자연이 모두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 선천에서는 인간과 사물이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상극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원한이 극에 달하였고, 진정한 도(常道)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선천세계에 관해서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造化)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¹⁴⁾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

13)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p. 47.

14) 같은 책, “공사: 1-3.”, p. 98.

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15)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이라.” 16)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이니라.” 17)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의 집에서 선기 옥형(璿璣玉衡) 도수를 정하시니 신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황용종의 집에 추도수를, 문공신의 집에 끈도수를, 그리고 신경수의 집에 일월 대어명 도수(日月大御命度數)를 문공신의 집에 천지 대팔문(天地大八門) 도수를 정하고 이 세 종도의 집에 밤낮으로 번갈아 다니시며 공사를 행하셨도다.” 18)

이러한 언명은 삼계대권을 가진 증산이 천지공사를 하는 방법을 설파한 것이다. 증산은 하늘과 땅을 뜯어고칠 수 있는 천지 도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하였다. 신도를 조화할 수 있는 천지 도수, 예를 들면 ‘선기옥형도수’ ‘저울 갈고리도수’ ‘추도수’ ‘끈도수’ ‘일월 대어명도수’ ‘천지대팔문도수’ 등을 행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는 음양합덕이 조화롭게 이루는 작업이다. 전경에서는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 19) 하여 하늘과 땅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천지정위(天地定位)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들은 하늘만 높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도 하늘과 똑같이 높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할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만물이 생성 발전하지 못하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고 합덕이 잘 되어야 우주 만물이 제대로 성장 발전한다는 것이다.

증산은 음이 양을 누르거나 양이 음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상태에서의

15) 같은 책, “공사: 3-5.”, pp. 130~131.

16) 같은 책, “권지: 1-21.”, p. 271.

17) 같은 책, “공사: 1-3.”, p. 98.

18) 같은 책, “예시: 31.”, p. 319.

19) 같은 책, “교법: 1-62.”, p. 232

교감은 진정한 감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시킨다 말하고 있다. 음이 양의 주재력에 도전하거나 양이 교태(驕泰)하여 수용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인온(綢緼)이 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은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고 불녕(不寧)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천지공사도 가장 중요한 작업은 정음정양(正陰正陽)으로 음양을 바로 잡는 것이다. 천지와 음양이 각각 지니고 있는 덕을 바르게 하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완전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음정양이다.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의 창달이며, 낳고 또 낳아 끊이지 않고 생성 소멸하며, 하늘과 땅의 교감에서 만물의 변화 생성이 일어나며, 만물이 그것에 의하여 자라는 것이다. 천지가 이러한 교감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일음일양에 의한 정음정양의 도(道)가 실현되어야 한다.

음양이 각각의 덕을 바르게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성장도 원활해질 수 있다. 즉 정음정양이 이루어지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지상천국이 건설될 수 있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세계개혁은 해원상생이 이루어져야 한다.²⁰⁾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원한은 다양한 갈등과 욕구 불만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욕에 의해서 원한은 쌓이고 맺혀 왔다고 한다. 해원사상은 추상적 원죄나 연기연생론과 달리 개인, 사회 구성원, 인류 전체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린 원통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해원상생에 대해 『전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20) 해원상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21)

세계개벽은 우주가 생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극의 창조가 작용함으로써 원한과 갈등이 쌓여 왔음을 적시하고, 해원을 하고 상생의 도를 바로 세워야 선경, 즉 지상천국이 건설된다고 하였다.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인류 종말의 위기에까지 빠진 인간을 비롯 모든 삼라만상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통해서 천지를 개벽하여 새 세상을 펼치겠다고 한다. 이러한 언명은 후천개벽의 선경(仙境), 지상천국은 해원상생이 주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산은 원한을 풀지 않고는 상생의 원리가 실행될 수 없다고 한다.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것은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訓誨)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가꿔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²²⁾ 대순 사상의 실행 규범은 한 마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상생을 실행하라고 한다. 인간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척을 짓지 말아야 하며, 쌓인 원은 풀어야 한다.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²³⁾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가 있는데, 이는 신명계 해원, 인간계 해원, 지계(地界) 해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명부신명의 공사 처결은 만고의 원을 품고 명부에 있는 신명들의 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원이 단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단주의 원을 풀어줌으로써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는 것이다.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의 땅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21)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1-3.”, 앞의 책, p. 98.

22)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 (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5.

23)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1-3.”, 앞의 책, p. 98.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²⁴⁾

해원상생은 척을 풀고 짓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척은 저지르는 측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원한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척은 먼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참회하여야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품은 원한이 풀리는 것이다. 척을 품은 측의 원을 먼저 풀어주고, 해원을 하게 함으로써 척을 지은 측과 원을 품은 측 사이에 이해가 이루어지고 상생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증산은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²⁵⁾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²⁶⁾ 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남을 미워하거나 피해를 주거나 원한을 사서 척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세계개벽은 신명계에서 쌓인 원한도 풀어 주어야 하고, 신명계의 운행 원리도 상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하늘과 땅, 사람의 삼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인간세계가 각기 조화롭게 상합하지 못하고 투쟁하고 갈등관계에 있다고 한다. 신명계와 인간계 모두가 상극(相克)의 지배를 받아서 서로가 원한을 품게 되어 천기가 고르지 않게 되어 비가 올 때에 제대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와 하는데도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재앙이 생기고, 질병이 따라서 일어나 모든 사물이 병들고 망하게 된 것이다.

신명계가 바르게 운행되도록 하는 것은 신도(神道)를 바로 잡는 명부공사이다. 증산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하고 말하고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고는 그것을 불살랐다.²⁷⁾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을 명부의 착란에 있다고 보고

24) 같은 책, “공사: 3-4.”, p. 130.

25) 같은 책, “공사: 3-29.”, p. 144.

26) 같은 책, “교법: 2-44.”, p. 242.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면 이를 통해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증산은 “이제 말세를 당하여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²⁸⁾고 하여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정립시켰다. 증산은 『전경』 <제생편>에서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루려면 신과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변화의 길이 열리고 또한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증산은 신을 음, 인간을 양이라 하고, 이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조화와 합덕을 갖지 못하면 인간계는 물론 신명계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만이 있게 되어 후천 선경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앞서 <음양경>에서 “신령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신은 음이요 사람은 양이다. …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有神有人神陰人陽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人人族 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²⁹⁾라고 한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끝으로, 세계개벽은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작업이기도 하다. 원시반본이란

27) 같은 책, “공사: 1-5.”, p. 99.

28) 같은 책, “예시: 17.”, p. 315.

29) 같은 책, “교훈: 2-41.”, p. 207.: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pp. 177~178.

자의대로 만물의 근원인 본래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반본이란 우주 만물의 생명이 도(道)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옛 고향으로 환원되어짐을 의미한다. 대순 사상의 도는 인간과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 자리이며, 천지일월이 춘하추동의 사계절운동을 스스로 무한히 반복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은 선천의 분열 과정을 종결짓고, 후천의 낙원세계, 즉 자연세계와 인간이 상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완성시키는 통일의 길을 말한다. 그러나 천지가 만물을 변화 생성하게 함은 천과 지의 기운의 상호 조화와 합덕에 의한 교감에 의해 가능하다. 합덕 교감에 의한 소통이 이루어짐은 좋은 낙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만약 교감은 하되 덕으로 합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질곡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원시반본은 본래의 모습과 상태로서 인간에게 적용하면 순수한 인간의 본성인 양심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자연에 적용하면 선천세계에서는 생장(生長) 운동을 하고, 후천세계에서는 성숙을 위한 염장(斂藏) 운동을 하는 것이다. 후천세계를 여는 세계개벽은 우주가 성숙을 하기 위하여 원시의 상태(무극 상태)인 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원시반본은 무극시대의 이상세계로의 복귀를 의미하지만, 단순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완벽한 새로운 세계인 지상천국의 건설을 의미한다.³⁰⁾

V. 결 론

이상으로 대순사상의 지상천국과 세계개벽에 관해 고찰하였다.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상천국은 대순진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적으로 도통진경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모든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 이상세계를 제시하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도 현실세계는 상극원리에 의해 도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각종 질병과 자연 재해, 환경오염과 생태계 등의 파괴 등으로 진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3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행록: 4-17.”, 앞의 책, p. 62.

선천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재리에 눈이 어두워 만물과 인간이 모두 멸망할지도 모르는 상황조차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이러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고 완전한 새로운 세상, 즉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상천국은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천국, 하늘 나라와 같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천국은 하늘 나라로서 신선이나 신명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말한다. 이것이 다른 종교의 구원관과 다른 특이점이다. 즉 기독교에서는 사후에 천당을 간다든지,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로 간다는 구원인데 비해서, 대순진리회의 지상천국은 생명을 가진 현 상태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상천국 건설은 현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많은 시사를 준다. 현대의 고도화된 과학문명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를 주었으며,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현대 물질문명은 인간성 상실, 나아가 자연환경의 오염과 생태계 등의 파괴로 과거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가져 왔고, 가공스런 핵무기 등의 개발과 세계 전쟁의 위협, 그리고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온난화현상은 인류의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³¹⁾ 그리하여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진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재리만 탐하여 각종 죄악과 타락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계개벽을 통한 지상천국을 건설하겠다는 대순사상의 구원은 종교적인 의의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의식을 갖게 해 준다. 인류에게 생로병사(生老病死)의 질곡에서 벗어나 불로불사(不老不死)하는 영생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함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화·풍(水火風)의 삼재(三災)가 없는 낙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이러한 지상천국 건설은 도통진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먼저 성숙한 인격을 갖추어 지상신선과 같은 존재로 변신되어야 한다는 윤리성을 강조한다.

31) 이석호, 인간의 이해(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pp. 60~65.

【참고문헌】

1. 저서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 이석호, 인간의 이해(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李載昌·떡정·윌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張秉吉, 大巡宗敎思想(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阿舍經』

2. 논문

- 楊茂木, “救援진리로서의 음양합덕과 민주주의”,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7)
楊茂木,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楊茂木, “宗敎와 文學을 통한 道通眞境 思想의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5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8)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대순사상논총: 제6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
鄭大珍, “大巡宗旨의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1996)